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면류관 벗어서(찬/새25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조관휘 장로 2부/주진철 장로 3부/한 존 집사 4부/권주현 집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그 사랑 이제 알았네(김기영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골로새서(Col.) 4:7-9.....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1:7-18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22) 밤을 만난 사람들의 사정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38): 거룩한 불편러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이름 아시죠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아바 아버지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부상으로 버려진 기분

The Feeling of Being Sideline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얼마전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가 엘에이 LAFC로 왔다는 소식이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특별히 남가주에 사는 한인들과 미국에 사는 교민들에게 기대 부푼 선물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티켓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대감이 최고조를 향해 치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축구선수로 살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정말 성공한 선수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 중의 슈퍼스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만 잘 해도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어린 축구선수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평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키워가다가 부상을 당하여 더이상 꿈을 펼 수 없는 선수들의 뒷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가끔 비싸게 계약을 맺고 들어간 팀에서 부상을 입고, 한 시즌을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게임도 안 뛰고 그냥 월급을 받는 팔자 좋은 신세라 할 수 있지만, 선수 당사자들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뛸 수 있을지, 여기서 자기가 꿈꿔 왔던 인생은 마감하게 되는지 기로에 선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건강을 회복하여 복귀를 하여도 이전 전성시대 만큼 기량이 발휘 되지 않아서 결국은 한 두 시즌 이후 조용히 은퇴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가가에 가면, 꼭 스포츠 만화만 빌려 보았습니다. 어쩌면 꿈을 키워 가며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에 서는 모습이 어린 저의 마음을 늘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단골처럼 스포츠 만화만 보았는데, 실상은 한 두 사람 외에는 모두들 부상이라는 복병 앞에 꿈을 꺾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실력을 키워 정상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도 얻습니다. 한 프로 야구 투수선수는 계약 때, 오토바이를 더이상 타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부상을 당했던 전력이 발견되어, 사전에 부상당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생활을 하며 걸어갑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며 힘을 얻고, 기도의 시간과 큐티로 하루를 여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처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부상당하여 버려진 기분이 지옥이 이럴 것 같다'는 고백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Not long ago, the breaking news was that Son Heung-min, who had been playing for Tottenham in the English Premier League, had joined LAFC in Los Angeles. The announcement quickly spread through the media and became an exciting gift, especially for Koreans in Southern California and throughout America. Ticket prices are already skyrocketing, showing just how high the anticipation has become. Having spent his whole life as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Son Heung-min is a true success story—a superstar among stars and a lifelong role model for countless young players.

But I've also heard many stories from the other side—the players who were chasing that dream only to have it cut short by injury. Sometimes, a player signs a lucrative contract, joins a team, and then gets injured before playing a single game, spending an entire season on the bench. To outsiders, it might look like a cushy situation—getting paid without even playing—but for the players themselves, it's miserable. They feel they're standing at a crossroads, wondering if they'll ever play again, or if this is the end of the life they've dreamed about. And even when a player does recover and return, often they can't perform at the level of their prime. Before long—sometimes after just a season or two—they quietly retire.

When I was young, I always rented sports comics at the local comic book store. I think it was because I loved seeing characters who, after years of hard work and perseverance, finally stood at the top. That storyline stirred something in me. But the reality is that, for most athletes—except for the rare few—their dreams are cut short by the hidden obstacle of injury.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from that: while working hard to improve your skills is important, being careful to avoid injury is even more critical. I once heard of a professional baseball pitcher whose contract included a clause that he was not allowed to ride a motorcycle. The team had discovered he'd been injured on a motorcycle before, so they made eliminating that risk part of the agreement. In a similar way, we as believers are also on a journey toward the final day when we will stand before God. Yes, it's important to read the Word daily, draw strength from worship, and train ourselves to begin each day with prayer and devotion. But it's even more important to avoid situations where we could suffer spiritual wounds or injuries. We should take seriously the warning found in the words of athletes who say, "Being sidelined and left behind feels like what hell must be like."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22)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밤을 만난 사람들의 사정

(골 4:7-9)

1. 옛날 편지들을 모아 두고 계시는 분 있다면, 어떤 편지를 간직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2.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7절, 참고/행 20:4, 엡 6:21, 딤후 4:12, 딤펠 3:12)

3. 10년 가까운 세월을 옥살이하고 어려움에 있던 바울을 도우며 그의 서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가 단순한 표현이 아닌, 훈장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참고/고후 11:26)

4.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사정'은 무엇인데, 그 사정을 알려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일까요? (7-8절, 9절)

5. 다음 참고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나누어 보십시오.(참고/히 4:15-16, 히 2:8, 요 16:33, 고후 1:4)

적용하기



■ 적용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이름 아시죠

선교
멕시코(BYM)

GOD'S DREAM TEAM!



이번 멕시코 선교 여행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첫 선교였습니다. 방학이면 늘 가족 여행부터 계획하던 우리 가정에서, 딸아이가 먼저 선교를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준비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인 멕시코에 도착해서는, 집에서도 잘 하지 않던 밥을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느라 몸은 많이 지치고 피곤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힘을 내어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 몇 배나 되는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아이들 팀의 이름은 God's Dream Team!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팀이 되기 위해, 6일 동안 매일 아침 QT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노방전도, VBS 예배, 저녁 예배, 고아원 방문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아이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멕시코 아이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에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 순수하고 뜨거운 모습은 오히려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가문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세족식을 통해 아이의 발을 씻기며 기도하고 축복했던 시간은,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캠프파이어를 하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임재를 온몸으로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이신 삶이야말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혜민 집사

교회학교
CIM 여름 수련회

믿음의 경주



부모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아버지이자 CIM 팀장으로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계보를 이어 달리길 바랐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도 체인 속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하소서."

간절함과 초조함이 교차했지만, 예배가 쌓이고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고, 목청이 터져라 부르는 찬양과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이성우 목사님의 목소리가 쉬어가는 설교와 폭풍우 같은 기도는 얼어붙은 혼과 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아,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혼에..."

'Life of Faith-Running Club' 2025년 CIM 여름 수련회 주제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Club입니다. 경주 중에는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뛰는 믿음의 경주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의 경주는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뛰는 동안 옆에서 함께 달리는 친구와 선생님의 얼굴과 눈물을 보면서, 또 울음

과 기도를 들으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37명의 참가 학생과 32명의 선생님이 함께 달린 믿음의 경주에는 이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 두려움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과 기쁨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그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자식의 믿음 성장을 목도한 가슴 벅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미 다음 수련회가 기대되는 설렘 속에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장이야말로 CIM 모두가 꿈꿔온 부흥의 모습이라는 확신과 함께 겨울 수련회에서는 또 어떤 믿음의 성장을 보여줄까요? CIM! 믿음의 경주, 시작!

진정훈 집사

크리스천 컬처
시니어 신앙생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성숙한 신앙생활!



인생의 후반기는 상실과 허무, 건강 저하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노년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립하는 길. 신앙은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백세 노인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인생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예배, 찬양, 영적 성장, 섬김, 선교를 지속하며,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시니어 성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둘째,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의 원천.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은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고 평안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앙생활은 자살, 사

망 위험을 줄이고, 인지 저하와 치매 진행을 늦춥니다. 기도는 스트레스 완화, 긍정적 정서 증진, 심혈관 건강 개선, 회복탄력성 향상 등 전인적 건강에 이롭습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할 때 평안을 약속합니다.

셋째,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교회 예배와 소그룹 활동은 시니어 성도들에게 소속감과 활력을 주고, 차량 지원·병원 동행·식사 나눔 등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세대 간 교류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며, 이민교회에서는 모국어 예배가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노년의 외로움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넷째, 섬김과 봉사의 생활화. 절제와 성실로 건강을 관리하며 봉사에 참여하면 신체 기능과 정신건강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노인은 사망률과 기능 제한

이 줄고, 정서 상태와 사회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타적 동기의 봉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시니어 성도가 주체적으로 경험과 은사를 활용해 섬길 때 노후가 풍성해집니다.

다섯째,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게 완주하는 길. 하나님은 노년에도 사랑과 돌봄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에 힘쓰며, 신체·정신·영적 균형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좋은 교회와 뜻을 같이하는 성도들과 연합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사용한다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생활은 노년의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건강과 기쁨을 유지하며, 남은 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허준수 집사(송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믿음의 고백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기다림의 연속이 '주님'이었음을 깨달으며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당당히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07년 5월, 남편 직장에서 첫 주재 발령을 받아 미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민분들은 셋째를 가진 저를 도와주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출산 후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장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미로 다시 발령을 받아 간 한인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는 기쁨 속에서, 주방 사역의 수고를 느낄 틈도 없이 4년이 지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여름, 이곳 어바인으로 오게 되었

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며 방황하던 저에게 VIP가 손을 내밀어 주었고, 2023년 10월부터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예배로 제 영혼을 맑게 해 주시고, 셀에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학교를 통해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과 매일 아침 Q&T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용기를 주시며, 저희 가족을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랑을 다시금 확신받고 싶어 100차 베델동산을 신청해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탄 수양관행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예쁜 자매는, 제 신혼 시절을 보낸 울산 동네의 소녀였습니다.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와 옛 추억을 나누며, 소중한 동기를 얻

게 되었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해 조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던 중, 그분이 바로 30년 전 매주 일요일 아침 저를 깨우던 드림 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은 부산의 모교회와 담벼락을 맞고 있었기에, 저희 가족은 매주 민원을 넣었었는데, 믿지 않던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델동산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 교만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했던 제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생애 처음 교회에 갔던 날, 삶에 지친 제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잊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안지영 집사

부설사역
한국학교

정의의 나무는 천천히 자란다



제9회 KOSAA 백범일지 독후감 백범통일상 수상! 베델한국학교 5학년 김준휘 학생이 2025년 제9회 KOSAA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최고상인 백범통일상을 수상했습니다. 독후감과 소감문을 소개합니다.

식물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과 햇빛을 적절히 주며 기다려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김구 할아버지의 삶을 읽으며, 정의와

사랑도 씨앗처럼 천천히 자라지만 멈추지 않으면 굳건히 뿌리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김구 할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였습니다. 어둡고 좁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용기를 배웠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힘이 아니라 정의와 정직, 서로 돕는 마음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일부터 바르게 실천하려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돕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약한 사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 '정의의 나무'를 제 마음속에 심겠습니다. 언젠가 이 나무가 커서 다른 사람을 그늘로 보호해 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상은 저 혼자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글쓰기를 권해주고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심선생님, 늘 응원하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동안 하나님께 지혜와 인내를 구했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 할아버지의 삶을 읽으며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준휘(5학년)

12차 베델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자 명단

새 학기를 맞아 68명의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이 캠퍼스로 파송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성도님들의 따뜻한 헌신으로 구성된 베델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에게 꿈과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사랑의 손길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유영 장학금,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아훼 장학금, 그리고 IT·Art 전공자를 위한 나팔 장학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나팔 장학금은 올해부터 두 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추가적인 헌신으로 내년부터는 Summit 장학금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발 과정 가운데 만난 학생들의 열정과 크리스천으로서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오늘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계심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장학생들을 포함한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의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무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학업뿐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 유영 장학금 선정자(선교사 자녀 3명): 김서인, 라하린, 이소망
- ▶ 아훼 장학금 선정자(목회자 자녀 3명): 박은선, 이다영, 이루비
- ▶ 나팔 장학금 선정자(IT/ART 전공자 2명): 백노아, 이아현
- ▶ 베델 장학금 선정자(60명): 김다인, 김시아, 김영훈, 김예나, 김요셉, 김유빈, 김은빈, 김재은, 김재희, 김주현, 김지안, 김진, 김진성, 김혜민, 남경인, 류영빈, 박은도, 박정원, 박희주, 손은비, 심오르, 심유하, 심하준, 안정철, 여다나, 원택함, 유예나, 윤지후, 윤택함, 이강민, 이봄, 이상혁, 이재진, 이재창, 이재은, 이하빈, 이하연, 이향기, 장갈랩, 정예린, 정은민, 정재희, 정종호, 정하민, 정하은, 정혜원, 정희재, 조나경, 조하은, 조한빛, 주연, 최민우, 최제성, 홍현민, 황순현, Caleb Han, Edric Kim, Joseph Song, Joyce Lim, Kyle Chang
- ▶ 일시/장소: 8월 17일(주일) 3부 예배 중, 본당 ▶ 문의: 석승진 집사 (949)232-0872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배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배채플: 이형석 전도사
- 예배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배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교회학교 등반(Promotion) 안내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새 학기를 맞이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학교 자녀들도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서며 새 부서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0일(주일),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은혜로운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각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K-1(케이원), 유년부, 초등부, BYM Junior High Qara, BYM High Holo, 한어 중고등부(CIM) 부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학부모께서는 8월 17일(금일) 주일부터 졸업한 학생들이 새 부서 채플룸으로 이동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회학교 교사진과 목회자들이 새로운 신입생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졸업생과 신입생이 새 부서에 잘 적응하며, 베델의 뜰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및 장소〉

- ▶ 영아부(0-17개월): 오전 9시, 오전 11시, 본당 1층 크라이름(남자 화장실 쪽)
- ▶ 유아부(18-36개월): 오전 9시, 오전 11시, 본당 2층 유아부실
- ▶ 유치부(37개월-PreK): 오전 9시, 오전 11시, 비전센터 1층 할렐루야채플(실내 카페 건너편)
- ▶ K-1(킨더가든-1학년): 오전 9시, 오전 11시, 비전센터 2층 임마누엘채플(체육관 위)
- ▶ 유년부(2-3학년): 오전 9시, 오전 11시, 비전센터 1층 유년부실(체육관 건너편)
- ▶ 초등부(4-5학년): 오전 9시, 오전 11시, 비전센터 1층 체육관
- ▶ BYM Qara 영어 중등부: 오전 9시, 본당 2층 찬양채플(그린룸)/ 오전 11시, 비전센터 2층 비전채플
- ▶ BYM Holo 영어 고등부: 오전 9시, 비전센터 2층 비전채플/ 오전 11시, 본당 2층 찬양채플(그린룸)
- ▶ CIM 한어 중고등부: 오전 11시, 비전센터 2층 살롬채플(실내 카페 위)
- ▶ 소망부: 비전센터 1층 조이채플(행정사무실 옆)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9월)	8/24:	①부-최주상	②부-탁정호	③부-한상섭	④부-김소라
	8/31:	①부-허승진	②부-홍승평	③부-황세헌	④부-윤지섭
	9/7:	①부-김도석	②부-구윤모	③부-강덕규	④부-김지수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8,9월)	8/23:	김건중	8/30:	김기주	9/6:	김광식	9/13:	황세헌
	강단꽃(8,9월)	8/17:	윤주원, 최하자	8/24:	최하자	8/31:	이수민	9/7: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희길(외과), 간호사-이옥선 다음주 | 의사-김재호(한외과), 간호사-윤성자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리판

Bethel Announcements

◆ Back to School 오이코프 온 세대 예배는 'OICOS'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9월,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예배, '오이코프(OICOF)'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이코프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간절한 저녁 예배입니다.
강사: Dr. Jason Lee(Cornerstone Christian School 교장)
일시/장소: 9월 5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오후 5시 30분부터 코트야드에 맛있는 Food Truck이 찾아옵니다. 구매 후 이용 가능)

◆ 셀 부흥회 하반기를 시작하며 '몸 튼튼! 마음 튼튼! 믿음도 튼튼!'이라는 주제로 셀 부흥회가 열립니다. 암 박사 김의신 박사(장로)님의 몸 건강, 상담으로 섬기시는 황성철 목사님의 마음 건강, 그리고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을 건강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하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시: 8월 22일(금) 저녁 7시 30분, 8월 23일(토) 오전 6시, 오전 7시 30분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수요저녁예배(자녀를 위한 기도회) 8월 한 달간 수요저녁예배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리에 부모 된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8월 20일, 저녁 7시 30분, 박경철 목사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해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자녀를 위한 기도 편지 신청 베델기도 사역팀에서 새 학기 시작부터 연말까지 매주 주말마다 자녀에게 발송할 수 있는 기도 편지를 제작하여(한글/Eng) 배포합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진 자녀들, 고단한 현실 앞에 위축된 자녀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보세요.
신청 방법: 8월 한달, 수요저녁예배(자녀위한 기도회) 후 신청 부스에서 발송 기간: 8월 29일(금)-12월 19일(금), 총 17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베델제자훈련생모집 차별화된 베델제자훈련을 만나보세요.
양육반 신청 기간: 8월 17일(주일) 오늘까지!
양육반 오리엔테이션: 8월 24일(주일) 오후 1시, 비전 채플(한/Eng)
제자훈련 신청 기간: 8월 17일(주일)-8월 31일(주일)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9월 7일(주일) 오후 1시, 비전 채플(한/Eng)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Rev. David Park (Eng) (718)490-9931



◆ 베델BAM모집 봄학기 훈련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8월 10일(주일)-24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8월 28일-11월 20일(총 12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문의: 이완희 집사 (949)431-4398



◆ 교회학교 등반(Promotion) 주일예배 오늘은 베델 교회학교 등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배와 말씀 안에서 풍성히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7면 참고)

◆ C2C(Call to Christ) 힙합 댄스팀 모집 C2C는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청소년 댄스·힙합 사역입니다.
강사/대상/등록비: Teacher Daniel An, 6-12학년, \$350
모임 시간/장소: 매주 주일 오후 2시-6시(9월 중순-12월 중순), 비전채플



◆ 베델 아기학교 29기 가을학기 모집 베델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9월 3일(수)-11월 19일(수) 매주 수요일 1회 총 12주 과정
정규반(15-48개월) \$300, 36명 / 추가반(30-48개월) \$200, 6명
문의: 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현승원 집사(701)212-5517



◆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세미나입니다.
일시/장소: 9월 12일(금)-12월 19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등록: 코트야드 부스나 홈페이지
문의:전정례 권사(714-240-3718), 이란혜 전도사(949-422-8828)

◆ 베델 MIT 가을학기 모집 오늘부터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9월 4일(목)-11월 20일(목) 매주 목요일
강좌: 노래교실, 뜨개질, 유화, 종이접기, 난타, 통기타, 한국화, 한글서예, 건강 한의학, 향기로운 인격 만들기
문의: 이강오 장로 (949)281-9530

◆ 기도해 주세요 실크웨이브 선교회 이사회가 8월 23일(토)부터 8월 27일(수)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성민/박유진 성도 가정에 딸 유민이가 8월 9일(토)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신경자 권사님(안영보 집사 모친, 김윤경 집사 시모)께서 8월 13일(수)에,
-故 장원해 성도님(조희정 집사 부친, 조성용 집사 장인)께서 8월 14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 & Training,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COLOSSIANS LECTURE (22)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Supreme Jesus!

The Circumstances of Those Who Have Faced Dark Times

(Colossians 4:7–9)

1. If you have kept old letters, share what kinds of letters they are and why you have kept them.

Apply to Life



2. What kind of person does Paul say Tychicus was? What kind of person am I in the church? (v.7; Ref: Acts 20:4; Eph. 6:21; 2 Tim. 4:12; Titus 3:12)

3. Helping Paul and delivering his letters while he had been imprisoned and suffering for nearly ten years would not have been an ordinary task. Why does the phrase “a fellow servant in the Lord” feel more like a badge of honor than just a simple expression? (Ref: 2 Cor. 11:26)

4. What does Paul mean by “my circumstances”, and in what way would informing the Colossian believers about those circumstances comfort their hearts? (v. 7-8, 9)

5.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reasons why Jesus can be our comfort. (Heb. 4:15-16; Heb. 2:8; John 16:32; 2 Cor. 1:4)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The Lord Watches Over You, He Knows My Name